

문화광장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추석이 다가온다. 벌초도 해야 한다. 평생시 서구적인 삶을 살다가도, 명절이나 제사, 벌초가 다가오면 우리가 유교적 전통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서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다가온다. 문중 벌초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하던 집안 어른들도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얼굴을 익히기도 힘든 후손들이 모여서 벌초를 하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흠뻑이진다. 정승오 감독의 '이장' (2020)은 하루하루 고된 현대의 삶을 사는 4녀 1

축제와 화장 : 문화인류학적 영상기록으로서 영화

남의 낱말이 공업단지가 들어서게 돼 아버지의 묘지를 이장하려고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각각의 처지와 갈등을 보여준다.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은 막내 승락은 글쓰기를 업으로 삼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아직도 누나들이 건사해야 하는 처지다. 이장이라는 집안의 중대사에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집안 어른들의 말에 누나들은 승낙을 찾아 나선다. 화장을 할 것인가, 다른 곳에 묘지를 옮길 것인가도 논란이고 보상금 5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갈등 거리가 된다. 어찌됐든 이장은 했고 그들의 일상은 변한게 없다. '서편제' (1993), '장군의 아들' (1990)을 만든 임권택 감독은 18년의 간극을 두고 '축제' (1996)와 '화장' (2014)을 만든다. 1936년생으로 올해 84세인 감독의 두 편의 영화에서 장례 풍습과 세태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창준의 원작을 바탕으로 둔 '축제'에서는 아내와 초등학교 딸을

둔 소설가(안성기)가 7남매를 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로, 호남 지역의 시골 장례를 보여준다. 속풍, 임중, 고복, 초흔, 사자상, 부고, 수시, 발상, 명정, 반함, 염, 입관, 영좌, 초경, 발인제, 노제, 하관, 실토, 반흔, 초우제 등 옛 절차와 용어를 충실히 기록하고 있다. 18년이 흐른 뒤, 김훈의 원작을 각색한 '화장'에서는 역시 안성기가 성장한 딸과 아내를 둔 광고회사 중역으로 나온다. 영화는 아내가 뇌종양으로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는 안성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한다. 죽어가는 아내를 보살피는 동안, 60대의 안성기는 회사의 젊은 여직원에게서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 소설가 박완서는 아들과 남편을 먼저 보낸 뒤에도 살려고 밥을 먹는 자신을 혐오해 한때 거식증에 걸린 적도 있다.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은 함께 있다. '축제'의 장례식이 일가친척

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드는 잔치집 분위기가, '화장'의 장례식은 요즘의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처럼 분업화되고 매뉴얼대로 치러지는 행사다. 안성기의 딸은 그렇게 매뉴얼대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듯한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표출한다. '부라더' (2017)에서는 우리나라 가정 의례 준칙의 기준이 됐던 경북 안동의 장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군사부일체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던 시기의 가정 의례 준칙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유행이었고 현재의 변화도 그러하리라 본다. 장례식에서 절차와 문장을 두고 논쟁을 하던 어른들은 어느덧 사라지고, 제주도의 장례식에서 육지 사무리를 쓰는 상조회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제주도 풍습을 치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아이러니를 느낀다. '축제'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박철수 감독의 '학생부군신위'는 경남 창원 지역의 장례 모습을 담고 있다.

열린마당

공모전 통해 상상의 나라 마음껏 펼치길



고경란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장

도내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고운 여학생이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0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문의 전화였다. 아마 고등학생부 공모전 작품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보였다. 이것저것 꼼꼼히 물어보는 것이 미리 질문을 메모해왔다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모양이었다.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나는 속으로 '이런 예쁜 딸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에 중등부와 고등부를 신설해 해마다 다양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인 역시 대학시절 디자인 전공이어서 관련된 각종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애쓴 기억이 있다. 공모전은 말 그대로 공모를 통해 경쟁을 하고 그 보답으로 포상이 주어진다. 대화라는 말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참가자들에게 묵직한 부담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도 학생들이 공모전에 도전하는 이유는 공모전을 통해 거둔 성과가 졸업 이후에 취업이라는 '좁은 문'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어느덧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작품을 접수 받기 시작했다. 디자인 공모전의 핵심은 평소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불편에 대한 의문과 관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고등학생, 대학생과 신진 디자이너들이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참가자들이 갖고 있었던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전교조 합법 지위 회복 축하드린다”

코로나 취약업소 점검 강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코로나 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6일 심야시간대 특별점검을 실시. 자치경찰단은 방역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헌팅포차, 감성주점, 락블링장 등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 백광택기자

후속 조치 신속 파악 주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7일 “전교조 합법 지위 회복에 따른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파악해 실행해달라”고 주문. 전교조제주지부장을 지낸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주간기획조

정회의에서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데에 환영과 축하를 드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언급. 이 교육감은 “다신 폐제의 논리로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아픔이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후속 조치를 요청. 진선희기자

미니밤단호박 매출 쟁쟁  
○...올해 제주산 미니밤단호박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신장해 주목.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근 미니밤단호박 출하를 종료한 결과 출하량은 860t(31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t 증가, 매출액은 11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2% 증가한 것으로 집계. 농협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판로확대를 위해 판매 시즌을 앞두고 공영쇼핑과 제주농협·생산농가가 함께 판매 전략을 세운 것도 매출신장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사설

교육부의 제주대 종합감사... 충격적 '민낯'

국립 제주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구성원 일부로 보이지만 공·인사 분야 등의 부당사태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1952년 개교 이래 큰 성장을 이뤄낸 제주대가 시대흐름에 맞는 공무원 청렴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한 결과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제주대 운영전반 종합감사(2016년-2019년 9월) 결과 인사·복무 13건, 입시·학사 16건, 예산·회계 10건, 산단·연구비 10건, 시설 5건 등 54건의 부당사태들이 적발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물품인 가정용 프라이팬 등 4종을 구입하고도 산학협력단에 과제수행에 필요한 토너 구입서류를 제출하는 등 총 14개 과제수행에 180건, 3900여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쓴게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11개 과제에 회의록 안열고도 외부인 등과 회

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 제출해 총 60건 1100여만원을 회의비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강사 위촉 시 학사학위 소지자를 학과장 추천서만으로 위촉하는 등 자격요건에 미달된 54명을 위촉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연구보조원에 배우자·가족참여 인건비 지급, 출석요건 미달 교직원에게 'A학점' 부여, 25명의 교수가 동일한 시험문제 반복 출제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간 교수의 갑질과 성폭력 문제로 으르렁대는 산단·연구비 10건, 시설 5건 등 54건의 부당사태들이 적발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물품인 가정용 프라이팬 등 4종을 구입하고도 산학협력단에 과제수행에 필요한 토너 구입서류를 제출하는 등 총 14개 과제수행에 180건, 3900여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쓴게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11개 과제에 회의록 안열고도 외부인 등과 회

지역감염 차단, 전도민 노력 없이 어렵다

제주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수도권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는 벌초 시즌과 추석 연휴가 겹치며 코로나19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객과 함께 귀향객 등 대규모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8명(격리 20명, 격리해제 27명, 이관 1명)입니다. 문제는 최근 게스트하우스발 11명, 산방산 탄산온천발 6명 등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처럼 온천과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집단감염과 n차감염이 동시에 발생하면 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수도권 지역 도민들에게 벌초와 추석 연휴 때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령 제주지역 역시 코로나19가 중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이 제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수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벌초철과 추석 연휴 때 도민들이 대거 고향을 방문할 경우 추가 감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벌초시즌을 앞두고 '이런 벌초는 우리끼리' 등 3대 방역 수칙을 달리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한 교육책임만큼 전도민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부 고**  
강태영 아버지 진주강공 시중(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6일 16시 4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8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9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한경면 낙천경 가족묘원  
부 인 흥 산 옥  
아 들 강 태 영 머느리 양은희  
유 두 현 김 귀 남  
딸 강 현 숙 사 위 고 우 시  
현 주 김 관 희  
진 희 강 형 록  
민 경 조 수 기  
현 진 임 제 훈  
※ 연락처 : 흥산옥 010-4662-0008  
강태영 010-3697-9003  
양은희 010-8663-4237  
강형록 010-4106-2580  
강진희 010-3626-0090  
임제훈 010-3692-3662  
강현진 010-3697-6976

**부 고**  
현태영(중양여중 교사) 어머니 군위 오씨 병연(향년 85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6일 20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8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9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삼달리 선영  
아 들 현 태 영 머느리 김 명 선  
태 승  
딸 현 금 자 사 위 이 정 철  
금 옥 고 금 환  
※ 연락처 : 현태영 010-3691-7803  
현태승 010-3692-0093  
이정철 010-6677-1504  
고금환 010-3698-0509

**부 고**  
최원철(제주도청 유적관리팀장) 아버지 완산최공 연주(향년 87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7일 06시 1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8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9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경남 진주시 제일병원 장례식장(3층/특실)  
▶장 지: 진주시 안락공원  
아 들 최 희 철 머느리 송 영 숙  
원 철 김 경 희  
호 철  
영 철  
딸 최 영 미  
손 자 최 건  
※ 연락처 : 최원철 010-2241-4131  
김경희 010-8377-4131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금매 (운석)**  
• 감정가 : 20억원  
• 매매가 : 2억원(절충)  
※ 대물가능 ※  
연락처  
**010-4855-601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